

‘후후한 교사, 꿈틀거리는 아이들’



가정

하나님께
예배 드립니다.

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설교

여러분, 무더운 날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물을 못 마셔 본 적 있나요? 목이 바짝 말라 힘들 때 누군가 시원한 물을 가져다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알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했지요.

하나님은 모세에게 “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”고 명령하셨어요. 하지만 모세는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,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세게 쳤어요.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내주셨지만, 모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.

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. 우리가 힘들고 속상할 때,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.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.

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셔요. 기도할 때, 말씀을 읽을 때,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.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어 봅시다! 함께 외쳐볼까요?

“순종할래요! 예수님만 따라갈래요!”

예배 순서

사 도 신 경 다 같 이

찬 송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 이

말 씬 봉 독 민수기 20:1~13절 다 같 이

설 교 반석의 물, 순종의 은혜 설 교 자

말 씬 나 눔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다 같 이

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
자녀가 부모에게

주 기 도 문 다 같 이

★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찬 양

하나님의 사랑이



▶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공동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,
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
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쁜 길임을
알게 해 주세요. 힘들고 화가 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
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어린이가
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말씀나눔

1.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?
모세는 어떻게 했나요?
2.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?